

# 보성군, 차산업 미래지도 다시 그린다

### 대한다원 대표와 만나 차밭 철조망 철거 뜻 모아 군민 20년 숙원사업 해결...테마파크 조성에 호재

녹차수도 보성군이 미래 차 산업 발전을 위한 지도를 다시 그리면서 다양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월 김철우 보성군수는 대한다원 장기장 대표를 만나 보성군의 대표적인 차밭인 대한다원을 에워싸고 있는 철조망 철거에 대해 뜻을 모아 왔다.

대한다원 철조망은 2000년 대 초반 입장료를 도입하면서 인근 차밭 경계에 설치되었으며, 안전과 미관상의 이유로 철거를 요청하는 주민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철우 군수는 대한다원을 비롯한 한국차박물관, 봇재, 명량다원 등이 경계를 허물고 하나의 녹차산업특구로 연계되면 상호 시너지가 더 클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장기장 대표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동으로 보성군민의 20년 숙원사업이 단방에 해결되고, 봇재에서 영천마을까지 이어지는 보성차정원 등 테마파크 조성에서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취임 초부터 보성차산업 제2의 부흥기를 열겠다고 밝히며,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 보성차를 수출하며 해외시장 개척에 나섰고, 전국 최초로 지자체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을 구축해 보성차 판매 촉진과 농가 소득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김 군수는 지난달 하동군 운상기 군수를 초청해 차산업 발전 협의회를 열고 세계 10대 건강식품으로 꼽히는 차의 효능을 알리는 홍보영상 제



작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차나무가 경관직불금 지급 작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보성군은 2021년 열리는 제10회 보성세계차엑스포를 국제행사 규모로 개최하기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사전 홍보 행사로 매달

넷째 주 토요일(15:00~17:00) 보성라이브커머스(www.bslishop.kr) 플랫폼과 네이버 라이브 쇼핑 등을 통해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보성차와 차 연관제품을 판매한다.

보성=김덕순기자



## 광양시, 배알도~망덕포구 '해상보도교' 성공적 연결

### 상부 포장·경사로 계단 설치 등 마무리해 다음달 개통 예정

광양시가 지난 7일, '망덕포구 및 백두대간 중점 관광명소화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배알도~망덕포구' 해상보도교 상부가 성공적으로 가설됐다고 밝혔다.

오는 6월에 상부 포장, 경사로 계단 및 교량 난간 설치 등이 마무리되면 웅장한 보도교가 열린다.

길이 275m, 폭 3m 규모의 보도교는 전통적인 현수교 개념을 탈피하고, 국내 최초로 곡선 램프를 도입해 경관 조망을 확보하는 한편, 자유로운 선택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부공간을 확보했다.

해상보도교가 개통되면 배알도를 중심으로 근린공원과 망덕포구를 잇는 특별한 해상 로드가 펼쳐진다.

또한, '섬진강 뱃길 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망덕산-배알도근린공원 짙라인이 준공되면 배알도 일대는 액티비티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광양=심종섭기자



## 순천시, 2022년 전남체전 상징물 선정 공모 통해 엠블럼·마스코트·포스터·구호·표어 등 각 2점

순천시는 오는 2022년 4월 순천시에서 개최하는 제61회 전남체전의 상징물 공모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시는 체육인·문화예술인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사전심사와 본심사를 거쳐 5종 10점(당선작, 가작)의 상징물 입상 후보작품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작품은 표절 등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5월 중순 최종 발표하고, 개작을 통해 응모별 응용 매뉴얼을 개발하여 본격적으로 전남체전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2022년 전남체전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다."며 "순천시에 적합하고 특색있는 상징물을 개발하여 차질없는 대회 준비와 홍보로 성공적인 체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30일 간 국민을 대상으로 상징물을 공모한 결과 엠블럼, 마스코트 등 5종에 총 402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순천=김승호기자



## 여수시, '상가밀집' 학동선소상가 주차타워 2개소 준공 '17일 개방'

### 지상 3층 주차타워 2개소 조성 343면 제공...주차난 해소 '기대'

여수시가 상가밀집지역인 학동선소상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본격 추진한 공영주차타워 2개소 조성공사가 오는 17일 마무리되어 시민들에게 본격적으로 개방된다.

수자원공사 앞과 여천등기소 뒤에 위치한 공영주차타워는 2개소에 총사업비 114억 원이 투입됐다. 지상 3층 4면으로 일반형 155면, 확장형 140면, 경형 21면, 장애인 전용 9면, 교통약자 14면, 친환경자동차 4면 등 총 343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규모다.

여수시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 수자원공사 뒤에 조성되는 학동선소상가 1 공영주차장 옥상에서 준공식을 개최하고, 곧바로 주차장을 시민들에게 한시적으로 무료 개방해 많은 시민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알릴 계획이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흔히 '부삼'이라고 불리는 학동선소상가는 상가밀집지역으로 주차난이 심각했다. 주차타워 조성 전 지평식 공영주차장으로 운영되었던 두 주차장은 총 157대의 주차가 가능해 주차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시 관계자는 "학동선소상가를 찾는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새로 조성된 두 주차장은 우선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된 뒤, 5월 중으로 여수시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되어 유료운영으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수=오상호기자

## 순천시 '북스타트 꾸러미' 택배서비스 운영

### 6~18개월 유아 선착순 333명 대상 7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

순천시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유아들이 책과 친해지고 책과 함께 성장하도록 돕는 '북스타트 꾸러미' 택배서비스를 진행한다.

이번 북스타트 꾸러미 택배서비스는 '책읽는사회문화재단'과 '문화체육관광부·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북스타트 택배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운영하게 되었으며, 작년에 이어 전라남도에서 순천시가 유일하게 선정되어 순천의 유아 및 부모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다.

지원대상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18개월(시행월 기준) 유아 약 333명이며, 북스타트 꾸러미는 그림책 2권과 가방, 그리고 육아에 도움이 되는 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생애 1회에 한해 제공된다.

신청은 순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등록 등본, 개인정보 활용동

의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5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꾸러미는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다음 달에 일괄 발송된다.

이와 함께 북스타트 꾸러미는 시립도서관 6곳(삼산, 그림책, 연향, 기적, 조래호수, 신대도서관)에서도 배부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행), 육아수첩을 소지하고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도서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꾸러미 수령 대상자 중 기한이 임박한 16~18개월 유아를 대상으로 택배서비스를 운영한 바 있다.

북스타트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립도서관(061-749-8902)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김승호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약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간격거리를 두어 주세요!

